

연예뉴스 HOT 5

곽도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곽도원

배우 곽도원(48)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새벽 5시께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은 2016년부터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배우 이미숙 고소



이미숙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를 명예훼손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배우로 활동한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에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이미숙이 당시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덮으려 장자연으로 하여금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미숙이 2012년 더컨텐츠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했다.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지오에 대해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을 이용했다”며 언론인터뷰 등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시즌2 만든다



지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시즌2를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최근 진행된 글로벌 팬 이벤트 ‘투동’에서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 “지옥이 다시 시작된다”는 자막을 입힌 영상을 공개하며 시즌2 제작 소식을 밝혔다.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그린 ‘지옥’은 지난 해 11월 공개돼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 1위 등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시즌1에 이어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각각 시즌2의 연출과 극본을 맡는다.

형설앤 “검정고무신 사업권 위임 받았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자 라이선스 사업 권리를 가진 만화 콘텐츠 기업 형설앤 “이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형설앤은 “원작자와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1960년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교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의 가족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내달 6일 개봉한다.

마마무 휘인, 공연중 눈부상 당해 치료중



휘인

결그룹 마마무의 멤버 휘인이 눈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25일 휘인의 소속사 더라이브레이블은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휘인이 전날 열린 ‘202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던 도중 무대 효과 장치 잔여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밀한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각막에 이물질로 인한 상처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휘인은 치료를 받은 뒤 약 처방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2014년 마마무의 멤버로 데뷔한 휘인은 2018년 솔로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첫 미국 단독 공연으로 해외 공연 시동

한인축제 후끈 달군 K트로트 신인선의 열창

‘봤냐고’ ‘지금 이 순간’ ‘고맙소’... 트로트와 뮤지컬 넘나드는 무대 10월 뉴욕, 11월엔 다낭서 공연

트로트 가수 신인선이 미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인선은 24,2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제44회 메릴랜드 한인 날 페스티벌 ‘우리 모두 다 함께’에 참석해 단독 공연을 펼쳤다. 이날 화려한 연보라 컬러와 그린색 슈트를 번갈아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그는 ‘봤냐고’를 시작으로 ‘사랑의 재개발’, ‘또 만났네요’ ‘막걸리 한 잔’ 등을 연이어 부르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인선은 특유의 무대 매너로 팬들을 한순간도 무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어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지금 이 순간’, ‘고맙소’ 등을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트로트와 뮤지컬 장르를 넘나들었고, 이를 통해 ‘케이(K)트로트 저력’을 해외 무대까지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메릴랜드 한인회 헬렌 원 회장이 주최

하는 이번 행사는 메릴랜드 주지사의 영부인인 유미 호건의 영상 메시지를 포함해 총영사 외에도 메릴랜드와 워싱턴 D. C. 버지니아에서 주요인물 등이 참석했다.

헬렌 원 회장은 “팬데믹을 뚫고 많은 동포와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인 축제에 신인선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족들과 한인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인선은 감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신인선은 10월 14,15일 뉴욕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23일 베트남 다낭에서도 자신 공연 형식으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속사 빅컬처엔터테인먼트는 25일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공연과 방송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열풍을 고스란히 전해주면서 ‘신인선 홀릭’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트로트 가수 신인선이 24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제 44회 메릴랜드 한인 날 페스티벌 ‘우리 모두 다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빅컬처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빌보드 200’ 1위가 보인다

정규 2집 ‘본 핑크’ 글로벌 빅히트 영 오피셜 앨범차트 ‘톱100’ 정상 2020년 빌보드 2위 넘을지 주목

‘블랙핑크 시대’가 열렸다.

최근 발표된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로 각종 케이(K)팝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블랙핑크가 또 한번 세계를 깜짝 놀란만한 대중음악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첫 주 앨범판매량으로 154만장을 넘게 팔아치우며 빌리언셀러에 등극했고, 글로벌 스트리밍시장에서도 역대급 위세를 떨치고 있어 케이팝 그룹의 최고 종전과제와 같은 미국 빌보드 1위 선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케이팝 걸그룹 최초...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블랙핑크는 27일(한국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도 최상위권 진입이 전망된다. 현재까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케이팝 그룹은 방탄소년단, 슈퍼엠, 스트레이 키즈로 모두 보이그룹이었다. 지금까지 걸그룹 최고 기록은 블랙핑크가 2020년 정규 1집 ‘디 앨범’으로 세운 2위다.

그에 앞서 발표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는 정상에 올랐다. 이 역시 케이

팝 걸그룹 최하다. 24일(한국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본 핑크’는 스위이드, 리나 사와야마 등의 쟁쟁한 글로벌 아티스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서 거둔 최고 순위는 ‘디 앨범’으로 2위였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더불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양대 차트로 꼽힌다. 한국 가수 가운데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이는 지금까지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했다.

블랙핑크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2집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을 24위에 올려놓았고, 선공개한 ‘핑크 베놈’(Pink Venom)은 38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는 ‘셧 다운’으로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톱 송 글로벌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노래는 일주일동안 총 3918만6127회 스트리밍됐다.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를 기록한 것도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최하다.

‘셧 다운’ 외에도 ‘핑크 베놈’ 5위, ‘타이파 걸’ 14위, ‘하드 투 러브’ 24위 등 앨범에 수록된 전곡을 이차트 톱 50에 올려놓았다.

‘본 핑크’는 한터차트(옛 가온차트) 기준 발매 첫 주 154만장 이상 팔아치우며 글로벌 저력을 과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걸그룹 블랙핑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수, 로제, 리사, 제니)가 정규 2집 ‘본 핑크’로 케이(K)팝 걸그룹 최초 미국 빌보드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천원짜리 변호사’, 제2의 ‘우영우’ 기대만발

‘괴짜’ 남궁민 첫 방서 시청률 8.5% ‘법대로 사랑하라’도 5%대 인기행진 법정드라마 흥수, 피로감 극복 속제

안방극장에서 ‘스테디셀러’ 소재로 꼽혀온 법정드라마가 최근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 MBC ‘빅마우스’ 등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끌면서 소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KBS 2TV ‘법대로 사랑하라’ 등 법정 소재를 다양하게 변주한 최신작들도 화제물임을 시작하면서 ‘제2의 우영우’의 탄생을 기대하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변호사 된 남궁민, 첫 방서 8%대

23일 첫 방송한 ‘천원짜리 변호사’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괴짜 변호사 남궁민이 어려운 이웃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1,2회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잡질’하는 주민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남궁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단박에 8.5%(닐스코리아)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렸다. 현재 방영하는 미니시리즈 중 1위다.

검사 출신 이승기, 변호사 이세영의 법률상담소 이야기를 그린 ‘법대로 사랑하라’는 로맨스와 법정 소재를 결합해 5%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우영우’의 글로벌 흥행 이후 법정 소재가 한국드라마의 인기 요소로 급부상하면서 두 드라마는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도 이끌고 있다.

연말까지 관련 소재는 안방극장에 계속



천원짜리 변호사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디즈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와 tvN ‘블라인드’는 각각 국선 변호사,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들의 이야기를 코믹, 스릴러 등으로 변주해 내놨다. 10월 5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진검승부’도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도경수), 이세희 등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의 일상을 그린다.

●‘소재 결합 형태서 벗어나야’

같은 소재의 드라마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일각에서는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해당 드라마들의 실시간 댓글창에는 “무엇을 보던지 전부 변호사가 주인공”이라며 불만 섞인 반응도 달렸다.

이에 대해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25일 “법정드라마가 로맨스, 코미디 등과 결합하면서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왔지만 대부분의 캐릭터가 천원짜리 정도로 그려진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 등 다른 장르드라마보다는 법정 소재가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고,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도 많아 제작 시도가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사회공자의 통쾌한 매력 등을 발판삼아 대중적인 인기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